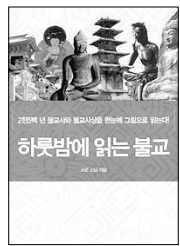


하룻밤에 읽는 불교
소운 스님 지음
랜덤하우스중앙 / 1만원



"불교는 어렵다."
이 말을 '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'
거나 '불교사상이 난해하다'는 뜻으로
읽어서는 안된다. 2천5백여 년을
이어오며 다양한 철학과 사상, 문화
를 포용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불교
를 '쉽게' 알기 어렵다는 하소연으로
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.

국내 첫 하버드 박사 비구니 스님

불교 역사·사상 알기 쉽게 정리

짧게 읽어도 이해는 길고 명쾌

먼저 살피게 된다. 스님은 1984년
불교를 읽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
어 동국대 선행과에 입학한 후 20여
년의 수행기간을 '불교 공부'에 쏟
아 부었다. 일본 동경대와 미국 하버
드대에서 공부한 스님은 '하버드대
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최초
의 비구니 스님'이 됐다. 현재는 동
국대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
로 근무하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.

책에서는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
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. 인도와 중
국, 한국, 일본, 티베트 등의 불교역
사를 시대순으로 차근차근 설명한
뒤 불교사상을 초기불교, 중관사상,
유식사상, 화엄사상, 선사상 등으로
분류해 핵심만 풀어 썼다. 각 시대
와 사상의 주요 사건에는 '10대 뉴
스'와 '역사메모'를 따로 두었다.
100여 장에 달하는 사진과 지도, 도
표 등을 덧붙여 핵심 개념을 체계적
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.

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외
국어 교육시스템 확립과 후학들을
위해 작은 연구 성과라도 차곡차곡
쌓아가는 학문풍토가 필요하다니
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"
"공부가 수행"이라는 스님은 요
즘 서를 성복동 약사암에 기거하며
일본 원로불교학자 마가오 가린이
쓴 <중관과 유식>을 우리말로 옮
길 준비를 하고 있다. 한국불교 발
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
나가는 준비인 셈이다.

여수령 기자 snoopy@buddhapia.com

새로나온 책



■ <부처님과 코드 맞추기>(보카 스님 지음, 운주사,
8천5백원) = <승가>지 편집장을 지내기도 한 반야사
주지 보카 스님의 산문집. 개인적인 감회를 담은 1부
'함께 가세 진리의 저 언덕에'와 불교 교리를 풀어쓴
2부 '법등명 자등명', 미국에서의 포교활동을 그린 3
부 '굿모닝 워싱턴'을 통해 방대하고 풍부한 부처님
의 '코드'를 알기 쉽게 풀어주고 있다.

■ <불교문예 25호>(현대불교신문협회 위촉, 8천
원) = 2004년 불교, 제9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와
불교문예 신인상 수상자의 작품과 수상소감을 만날
수 있다. 기획특집으로는 조지훈 시인의 대표시선과
문학평론가 김선 씨의 시인론 '불교정신의 수용을 위
한 탐색'을 담았다.

■ <산정리리>(한성철 지음, 삶과 꿈, 1만원) = 은행
지점장 출신 산악인인 지은이의 세 번째 산(山) 소재
시집. 인도 강고트리, 중국 부양산, 몽골 몽크하이
안, 일본 후지산, 남미 안데스 등 외국의 산을 소재로
삼은 작품 120여 편이 담겨있다.

■ <병을 부르는 말 건강을 부르는 말>(버바라 호버
맨 레바인 지음, 박영정 옮김, 산타, 1만5천원) = 몸
에 대한 말과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. 32세에 뇌
종양에 걸렸던 지은이는 매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
사용하는 수백 가지의 표현들을 제시하고 이런 생각
들이 어떤 식으로 병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다.

Table with 4 columns: 순위, 도서명, 저·편자, 출판사. Lists 10 best-selling books.

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book 'Baroboin Seonmunyeong Jeon'.

죽음도 꺾지 못한 피끓는 예술혼

<내 안의 깊은 계단>과
<인도 기행> 등의 작가 강
석경(53) 씨가 5년만에 신
작 소설을 냈다. 죽음을 앞
둔 화가의 치열한 예술혼
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의
제목은 <미불(米佛)>. '쌀
한톨만한 불성을 지녔다'
는 뜻의 '미불'은 주인공
인 화가 이평조가 젊은 시
절 불가(佛家)에 몸담았을
때 받았던 별명이다.

미불
강석경 지음
민음사 / 9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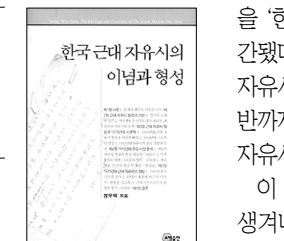


칠순 노화가를 통해
원전과 불완전·미와 추
극과 극 오가는 모습 그려

신이 토한 피로 그림을
그리는 마지막 장면을 통
해 지은이는 과학철학자
이자 시인인 가스통 바슐
라르의 "위대한 예술가
의 참다운 운명은 '일의
운명'이다"라는 말을 선
연히 그려 보이고 있다.
이화여대 조소과를 졸업
한 후 30여 년 가까이
'예술가란 무엇인가'를
화두로 삼아온 지은이는
이 작품에서 '어떤 삶의
고난도 진정한 예술혼을
꺾을 수 없다'는 믿음을
담으로 제시하고 있는
것이다. '삶의 강렬한 근
거로서 에로티즘을 추구
하는 노화가'는 칠순에도
정념을 꺾지 못하는 별거숭이 인간이지만
화폭 앞에선 구도(構圖)로써 제왕처럼 완
전을 지향하는 미불은 원전과 불완전, 미
와 추, 예술가와 범인의 경지를 모두 보여
준다"는 것이 주인공 미불에 대한 지은이
의 설명이다.

'님의 침묵' 근대시의 출발이었다

한국 근대 자유시의...
정우택 지음
소명출판사 / 1만6천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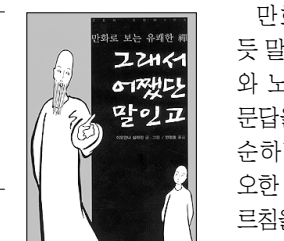
"만해 한용운의 시는 '부재
(不在)하는 님'에 대한 인식
혹은 자각으로부터 출발했다. 그는 님이 부재하는 비극
적 현실을 한국의 근대적 현실로 인식하고, 그 속에서
자기완성의 계기를 찾았다."
한국 근대시의 정서적 구조이자 근대적 서정의 원천

을 '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님'으로 파악한 연구서가
출간됐다. 대한과학대 정우택(42) 교수가 펴낸 <한국 근대
자유시의 이념과 형성>은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중
반까지 한국에서 근대 자유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근대
자유시가 갖고 있는 이념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.

이 책에서 지은이는 "한국근대시는 근대적 삶에서
생겨나는 충동과 속력을 시작 창조의 에너지로 전화
하는데서 확립됐다"며 "이러한 관점에서 지은이는 한
국 근대시가 이상화, 김소월, 한용운에 이르러 비로소
성취됐다"고 주장한다. 특히 1926년 발표된 한용운의
'님의 침묵'은 근대 자유시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
라고 평가하고 있다.

익살과 웃음이 퍼지는 禪

그래서 어쨌단 말이고
이오안나 실라진 글·그림
안정효 옮김
들녘 / 7천원



네 컷 만화에 부처님의 가르
침을 담은 '선(禪) 만화' <그레
서 어쨌단 말이고>가 다시 번역되어 나왔다. 지난
1986년 <스님들이 보는 만화책>(우리출판사)으로 국
내에 처음 소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만화는 이오안
나 실라진이 네덜란드 잡지 <우주(Cosmic Paper)>에
'Zen Comics'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것이다.

만화에는 알
듯 말 듯한 제자
와 노스님의 선
문답을 통해 단
순하면서도 심
오한 불교의 가
르침을 전하고 있다.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제자는 선
(禪)을 '알음알이'로만 이해하려다가 노스님의 한 마
디에 번번이 허를 찔린다. 노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하
고 때론 익살스럽지만 '이 순간에 당신에게 남은 것이
라고는 웃음뿐이로다'. '네 부모의 미생전(未生前)에
는 무엇이 네 얼굴이었더라?' 등의 말은 마음속으로
몇 번이고 되새겨보게 된다.



Advertisement for 'Bukhan Dongpo' (복한 동포) featuring a list of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.

Advertisement for 'Seon-sa Ju Ji Beom' (은성사 주지 법륜 합장) featuring a portrait of the abbot and details about a Buddhist event.

Advertisement for 'Dongguk University Music Academy' (동국대학교 음악 아카데미) featuring a piano and details about a student competition.

Advertisement for 'Dangnyo' (당뇨)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details about a diabetes management program.